

< 여성지도자들, 장서리 '원색' 지지 >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정상(張裳) 총리서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의 명분으로 22일 마련된 여성지도자들의 모임은 '최초 여성총리 지명의 의미를 나누는 여성모임'이라는 회동의 이름이 무색하게 '일방적 지지모임'으로 흘렀다.

발언에 나선 여성계 중진.원로들은 장 서리 장남의 국적 및 부동산 시비, 김활란상 제정 등을 둘러싼 논란을 언론과 정치권 등 제3자의 '흠집내기'로 치부했다. 성(性)을 떠나 사회지도층이 갖춰야 할 품위를 이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찾기 어려웠다.

은방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장 서리가 여론몰이와 흠집내기로 정치적 희생양이 될 것을 우려한다'며 '국회가 깊은 사려와 공정성으로 총리를 인준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 서리가 이화여대 총장 시절 추진했던 김활란상 제정 문제를 언급, '(일제와) 어느 정도 타협한 사람(김활란)을 매국노로 지탄하는 것은 과하다'며 '숙명적 과거사에 소모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역사관을 피력했다.

11, 12대 민정당 전국구 의원을 지낸 김현자씨는 원로 발언에서 '장 서리의 지명을 환영하는 것은 같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리한 역사의식과 통찰력으로 이 시대를 이끌 지도자로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장 서리가 10년 이상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한집 한방에서 모신 일화를 소개한 뒤 뛰어난 지도력, 공평무사, 원칙주의, 역사의식 등 그의 '미덕'을 길게 열거했다.

15대 국회의원(민주당) 전국구 의원을 지낸 정희경(청강학원 이사장)씨도 '우리나라는 여성각료가 임명되면 꼭 시비가 일어 단명장관이 되는 오명을 안고 떠났었다'며 '장 서리의 임명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에 '왕따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장 서리 아들이 의료보험에서 내국인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자식이 부모가 낸 보험료로 혜택을 받는 게 무슨 잘못인가'라며 '언론에 거론된 몇 가지 점은 법률적,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을 모욕 주는 제대로 돼 먹지 못한 사회양상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언론 등을 거냥해 '쓸데없는 것으로 트집잡아 사람을 깎아내리면 누구도 못견딘다'며 '상당 부분은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노후를 위해 사둔 땅 문제 등을 일일이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문

발언자들의 이날 장 서리에 대한 전폭적 지지로 여성지도자들의 명의로 발표된 성명은 다소 무색해졌다. 여성단체연합이 초안을 잡은 성명은 '장 서리가 장남의 국적 문제 등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명쾌히 답변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라'는 '비판적 지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shin@yna.co.kr (끝)